



김 삼 수
<인하의대 교수>

판막증

류마티스성 심장병을 대부분 판막증이라 하는데 이 판막의 구조는 심장내에 네곳의 판막이 있으며 심장내 혈액이 막히는 일없이 한방향으로 흘려, 역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끔 움직이고 있다.

이 판막에 류마티스열 등으로 이상이 생긴 경우를 판막증이라 하며 그 원인은 주로 류마티스성과 선천성 등외에 여러가지로 나날 수 있다.

또 판막증에는 판막이 열리기 어려워서 혈액이 흐르기 힘든 경우와 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서 혈액의 일부가 본래의 흐름과는 달리 역방향으로 후퇴하는 경우 등이 있다.

어떠한 경우이건 심장과 폐등에 혈액이 우혈상태로 생기고 그래서 다음에 소개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판막증의 증상

심장이 신체내의 펌프(pump)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혈액의 순환이 나빠져서 우혈상태로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숨이 차고 부종이 나타나며 이런 상태를 부전이라고 한다. 이 심부전의 증상은 심장의 작업이 저하되면 나타나는데 허혈성 심장병, 판막증, 선천성심장병, 심근증, 그외 심장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나타나기도 한다.

판막증(심장병)이 비교적 가벼울 때는 뛴다든지, 계단을 오를 때 정도의 동작에만 숨이 차지만 판막증이 심해지면 조금 걸어도 또는 안정하고 있어도 숨이 차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보다 더욱 심해지면 밤에 수면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고통스러워 깨어날 정도가 된다.

판막증에 의해서 부종이 나타나는 것은 얼굴보다는 다리와 정강이의 근처에 잘나타는 것이 특징인데 정도가 심해지면 복부와 흉부에 물이 고이게 되며 이런 증상으로 심장의 작업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심부전의 증상이 강할수

류마티스성 심장병의 치료와 관리

우혈생기고 부종나타나

과로피하고 수술시 의사와 꼭상의

첫번에는 내과전문의로

숨차고 부종이 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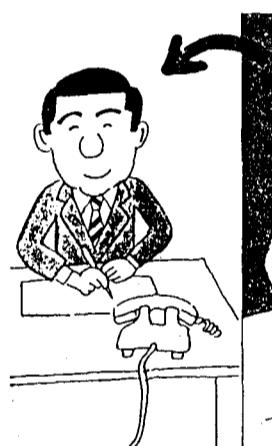


내과적 치유가

塞栓症의 好発部位



사회생활을 잘할수 있다.



록 증증의 판막증이 진행중이라 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심장내의 혈액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이 때문에 심장의 내부에 혈액이 응고되어 떨어리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우혈이라 한다. 이 우혈이 평소에는 심장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지만 이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혈액의 흐름에 따라서 뇌, 신장, 팔, 다리 등의 전신 여러곳에 전달되어 그곳의 혈관을 폐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상태를 색전증이라고 하며, 뇌의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일어난다. 일단 뇌의 혈관이 막히면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판막증의 치료

숨이 차는 증상은 강심제와 이뇨제 등의 약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나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된다.

좁아진 판막을 절개하여 넓힌

다든지, 인공의 판막으로 대치를 한다. 심장내에 혈액덩어리가 있어 색전증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엔 수술로 혈액덩어리를 제거해야 한다.

이와같이, 판막증에는 내과적인 치료와 외과적인 치료를 시기를 맞춰 실시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외에 류마티스성의 판막증의 원인이 되는 류마티스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항생물질을 복용하

는 것도 행하여지고 있는데 특히 20세까지의 젊은이들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와같이 판막증이라 진단을 받으면 되도록 빨리 전문의의 적절한 치료를 받아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의 주의사항

우선 과로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과로에 의해서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이파금 볼 수 있는데 숨이 차지 않거나 통괴를 느끼지 않을 가벼운 정도의 운동은 좋다.

또한 가벼운 판막증은 임신, 분만도 가능하다.

식생활시에는 염분과 수분을 자제토록 하는 것이 좋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식이요법을 실시한다. 한국 사람은 하루 평균 약 15g이상의 염분을 섭취하는데 중병인 경우는 이의 1/2, 重病일 때는 1/3부터 2이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체중측정을 통한 부종체크

병세의 추위를 아는 한가지 방법이 체중측정이다. 일주일에 2~3회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측정을 하는데 만일 급격히 체중이 늘면 “부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신호이다.

이러한 상태의 발생원인은 과로, 염분과 수분의 과다섭취하기 쉬우니 전문의사에게 보고하고 일상생활을 재조사해봐야 할 것이다.

발열에 대한 주의

판막증인 사람은 열이 나는 것에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한다. 판막증환자는 바이러스와 세균감염에 악해서 통상적인 감기라도 일시적으로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수가 있으니 늘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감기가 아닌데도 미열이 계속 날 때는 빨리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한다.

그외 세균성 심내막염이란 병이 있는데 이것은 세균이 혈액안에 들어가 장애된 판막에서 증식하는 병이다. 이로 인해 판막은 더 한층 파괴되어 병이 매우 악화되는데 특히 판막증과 선천성 심장병인 사람들이 걸리기 쉽다. 만일 세균성 심내막염이 방치되면 생명을 잃는 수도 있다. 세균이 체내에 침입하는 경로는 첫과에서 이를 뽑은 후라든지, 산후, 비뇨기계의 수술 등이 있다. 이때는 미리 판막증이 있다는 사실을 담당의에게 알리고 적당한 예방법을 간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성 신경장애

새로운 치료제로 입증된 비타메진

이런 증상일 경우가 당뇨성 신경장애입니다.

- 혈액중의 고혈당은 신경조직을 파괴하여 팔다리의 무력감증, 저림, 근육통이 나타난다.
 - 시력이 떨어지며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 발기부전과 배뇨가 곤란하다.
- 이와같은 당뇨성신경장애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당뇨로 손상된 신경조직이 살아납니다

- 대량의 비타민 B群은 인슐린의 생성 및 활성을 촉진하고, 신경세포의 부활작용도 우수하여 최근 당뇨성 신경장애, 맹막증, 신증, 기타소모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로 그 약효가 입증되었습니다.
- 손상된 신경조직을 조속히 재생시켜줍니다.
 - 소염진통제가 아니면서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고단위 약효도 다행입니다.

- 벤포티아민 69.15mg
염산 피리독신 50mg
시아노코발라민 500 µg

당뇨성신경장애, 신경통, 기타소모성질환 치료제

® **비타메진**

표준소매가격 50mg, 100캡슐 22,000원

고기능 저가격의
글루코메타GX

1. 하나의 버튼으로 조작이 간편.
2. 광전저사법에 의한 완벽한 측정.
3. 10회분을 기억하는 메모리 가능.
4. 반영구적인 수명.
5. 휴대가 간편한 담배갑 크기.
6. 기능과 성능에서 비교될수 없는 가격 16만원.

글루코메타GX

신
발
매